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atisfaction in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Mi Young Han^{1#}, Young Suk Kim^{2*}, Min Kyung Jeon³, Ick Jee Kim⁴

¹Department of nursing, Silla University, Busan, Korea

²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Busan, Korea

³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Gimhae, Korea

⁴Department of Nursing, Youngsan University, Yangsa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 between social support and satisfaction in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This study employed a cross-sectional survey of 205 students in three nursing colleges located in Busan and Yangsan.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16 to April 10, 2015 through a self-report questionnaire survey, measuring variables such as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satisfaction in major.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correlation and path analysis. The findings of the path analysis were as follows. Both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in major. We foun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atisfaction in major.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effective social support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as a way to increase resilience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social support, resilience, satisfaction in major, nursing studen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전공만족도는 자신의 전공교과목을 통해 흥미가 충족되고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 즐거움과 전공관련 직업에 대한사회적인식, 장래성, 안정성 등에 관한 긍정적 지각을 의미한다(Lee & Park, 2014). 전공만족도가 높은 대학생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지만 전

공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학습에 대한 흥미상실로 인해 성적저조와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 박탈 등을 겪게 된다(Jang, 2005). 또한 전공에 대한 불만족은 대학생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호현장에서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전문직 간호의 질을 떨어뜨린다(Lim, 2014). 간호사는 의료인력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환자와 가장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므로 전공불만족

The 1st author: Mi Young Han, Tel. +82-51-999-5767, e-mail. hmynr@silla.ac.kr

* Corresponding author: Young Suk Kim, Tel. +82-51-990-3031, e-mail. joy1763@hanmail.net

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간호의 질 저하는 전체 의료 기반 약화라는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의 경우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국가고시 합격에 대한 부담이 있고 감당해야 할 학업량이 많아 전공교과에 대해 깊이 숙고할 시간이 부족하며(Kwag, 2013), 이는 결과적으로 전공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여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전공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들이 많았고, 임상실습스트레스와 간호전문직(Park & Oh, 2014), 자아탄력성과 자아효능감(Kim & Lee, 2014), 사회적 지지 유형(Kweon, *et. al.*, 2012), 자아탄력성과 취업준비스트레스(Lee & Park, 2014)가 있었다. 선행연구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중간정도 수준이었고(Moon & Lee, 2010; Jung & Shin, 2006; Cho, 2014), 학업성취도가 높고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집단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았으며(Lee & Park, 2014),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낮았다(Park & Oh, 2014).

전공만족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는데(Kweon, *et. al.*, 2012), 사회적 지지는 환경적 자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지, 친구, 동료,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긍정적 자원으로, 사람 간의 지속적 상호관계의 부산물이며 사람의 특성과 사회적 맥락에 의해 만들어진다(Oh, 2006). 사회적 지지는 1970년대 중반 개인의 주변에 의미 있는 타인이 있어 개인의 삶이 활기차고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현상을 관찰한 일군의 연구가들에 의해 개인의 안녕 및 건강과 사회환경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작된 개념이다(Oh, 2006). 사회적 지지의 종류는 개인에게 필요한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는 정서적 지지,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적 지지,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는 도구적 지지, 개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줌으로써 자신이 가치를 인식하게 해주는 평가적 지지가 있

다(Oh, 2006).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생리적 측면의 부정적 효과를 약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Lee, 2013). 또한 대학 시기는 고등학교까지 계속된 학업위주의 비교적 단순하고 의존적인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며 성인으로서의 독립적 생활을 준비하는 과도기적 시기이므로 다양한 지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Lee, *et. al.*, 2013).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엄격한 교과과정, 임상실습 부담감, 과중한 학업량 등에 시달리므로(Kwag, 2013) 보다 많은 사회적 지지가 요구된다. 선행연구 결과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 관련 연구는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많았으며, 보건행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가 높은 군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낮을 경우 전공만족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weon, *et. al.*, 2012). 하지만 이는 보건행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한 교육환경에 처해있는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공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가진 신념, 성향, 내적자원의 영향을 받으므로, 동일한 학과에 속해 있더라도 환경을 수용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전공만족도는 달라질 수 있는데(Kim & Park, 2015), 자아탄력성은 이러한 개인 내적 자원 중의 하나이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에게 닦친 역경을 조정하고 상황에 맞게 통합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Gillespie, *et. al.*, 2007), 스트레스나 예상치 못했던 시련과 같은 위기상황으로부터 회복하는 능력 혹은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Earvolino-Ramirez, 2007).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은 낮은 상황에 유연하고 역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전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감정과 흥미의 다양성,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적절한 감정조절, 미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긍정적 미래지향성이 있다 (Atsushi, *et. al.*, 2003; Jung, 2006 재인용). 자아탄력성 연구 초기에는 심각한 질병이나 극심한 스트레스 같은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탄력적 자아라는 성격적 특성이 위기상황 극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차츰 대학생, 일반인 등으로 그 연구범위가 확대되고 있다(Earvolino-Ramirez, 2007; Lee & Park, 2014). 또한 과거에는 자아탄력성을 변하지 않는 성격적 특성으로 보는 관점이 우세하였으나, 점차 변화가능한 역동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Earvolino-Ramirez, 2007).

선행연구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동기는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Lim, 2014), 유아교사,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Kwag(2014)의 연구 등 소수 몇 편이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과 전공만족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Lee & Park, 2014), 간호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Kim & Lee, 2014).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는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살펴본 연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관련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와 개인내적 요인인 자아탄력성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

적으로 규명하여 사회적 지지와 전공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자아탄력성은 중재를 통해 변화가 가능하므로, 전공만족도 증진을 위해 자아탄력성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회적 지지와 전공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라는 개인 내적 요인이 사회적 지지와 전공만족도를 매개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전공만족도 및 자아탄력성의 수준과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와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와 전공만족도 및 자아탄력성의 구조적 관계를 본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는 사회적 지지, 종속변수는 전공만족도로 두고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선행연구를 근거로 사회적 지지는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직간접효과가 있고 자아탄력성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경로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및 전공만족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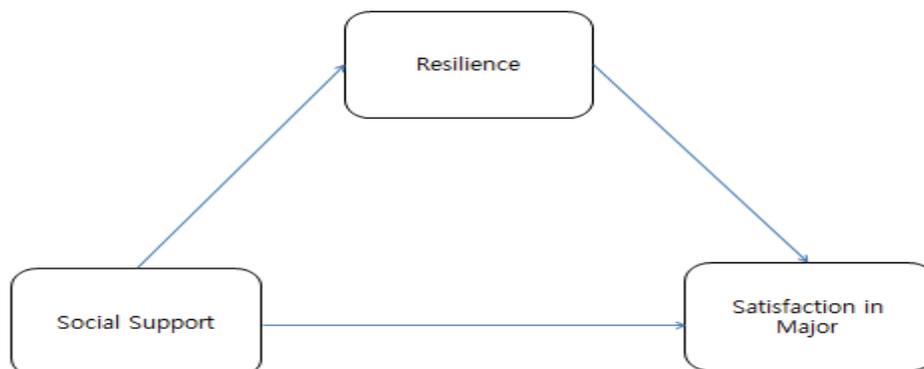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연구문제 2.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지지와 전공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대상자는 B광역시 소재 1개 간호학과와 Y시 소재 2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중 임상실습을 경험한 220명이었다. 총 22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나 응답이 부실한 15부를 제외하고 최종 205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구조방정식에서 대상자의 수는 측정 변수 당 15명을 권장하며 표본크기 200이 임계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권장표본크기를 충족하였다(Bae, 2011). 본 연구는 2015년 3월 16일부터 4월 10일까지 수집된 자료를 2차 활용하였다. 1차 자료수집 당시 설문지 재사용에 동의하는 문구를 삽입하여 설문자료가 2차 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관해 연구 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설문지의 부분적 재사용에 대해 K대학교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KU IRB-2014-0064-01)을 얻었다.

3. 연구도구

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사용하였다. MSPSS는 가족(Family), 친구(Friends), 의미 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s)으로부터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는 Zimet, *et. al.*(1988)이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Kim(2008)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가족지지 4문항, 친구지지 4문항, 의미 있는 타인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1점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7점 '매우 그렇다'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된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2) 전공만족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공만족도 측정도구는 Kim & Ha(2000)의 학과만족도를 Lee & Park(2014)이 수정 보완한 도구이다. 본 도구는 총 13문항으로 개인차원 만족도 6문항, 사회차원 만족도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1점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 & Park(201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3) 자아탄력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탄력성 측정도구는 Atsushi, *et. al.*(2003)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탄력성 척도 (Resilience Scale)를 Jung(2006)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긍정적 미래지향성 5문항, 감정조절 6문항,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 문항은 역산하여 점수화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1점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ung(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2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전공만족도 및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AMOS 20 을 사용하여 경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자가 전체의 94.6%, 학년은 3 학년이 전체의 60.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

다. 대인관계는 좋다고 인지한군이 59.0%, 보통이라고 인지한 군이 40.5%였으며, 건강상태는 좋다고 인지한 군이 66.3%, 보통이 33.7%였다. 간호학과 선택동기는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가 34.1%, 취업전망이 30.7%였다. 학과성적은 보통이 63.4%로 가장 높았으며, 졸업 후 희망진로는 병원간호사가 87.3%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임상실습만족은 만족한다가 54.1% 보통이다가 39.0%였으며, 대학생활만족은 만족이 55.6%, 보통이 37.6%였다.

Table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11(5.4)
	Female	194(94.6)
Grade	3rd	123(60.0)
	4th	82(40.0)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121(59.0)
	Moderate	83(40.5)
	Bad	1(0.5)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136(66.3)
	Moderate	69(33.7)
Selection motivation to study nursing	Interest	70(34.1)
	Academic score	27(13.2)
	Job opportunity	63(30.7)
	Advice of parents	43(21.0)
	Etc	2(1.0)
Level of academic score	High	42(20.5)
	Medium	130(63.4)
	Low	33(16.1)
Hope that the first course after graduation	Clinical nurse	179(87.3)
	Admission of graduate school	7(3.4)
	A nurse-teacher	3(1.5)
	Industrial nurse	3(1.5)
	Health service official	11(5.4)
	Etc	2(1.0)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111(54.1)
	Moderate	80(39.0)
	Unsatisfaction	14(6.8)
Satisfaction of school life	Satisfaction	104(55.6)
	Moderate	77(37.6)
	Unsatisfaction	14(6.8)

2.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본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지,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는 1-7 점 범위에 평균 5.91 점이었으며, 자아탄력성은 1-5 점 범위에 평균 3.61 점, 전공만족도는 1-5 점 범위에 평균 4.10 점이었다.

3. 제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본 연구대상자들의 제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및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 임상실습만족, 학교생활 만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결과 임

Table 2. Variables of descriptive statistic

(N=205)

Variables	M±SD	Min	Max	Range
Social support	5.91±0.78	3.17	7.00	1-7
Resilience	3.61±0.44	2.25	4.56	1-5
Satisfaction in Major	4.10±0.55	2.54	5.00	1-5

Table 3.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satisfaction in major to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205)

Characteristics	Categories	Social Support		Resilience		Satisfaction In Major	
		M(Sd)	T/F(P)	M(Sd)	T/F(P)	M(Sd)	T/F(P)
			Scheff		Scheff		Scheff
Gender	Male	5.73(1.05)	3.80(0.053)	3.78(0.50)	0.22(0.641)	3.74(0.71)	2.08(0.150)
	Female	5.92(0.76)		3.60(0.44)		4.12(0.53)	
Grade	3rd	5.89(0.80)	0.91(0.342)	3.55(0.44)	0.08(0.779)	4.03(0.56)	0.08(0.782)
	4th	5.93(0.74)		3.70(0.43)		4.20(0.52)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6.12(0.67)	11.79(<.001)	3.71(0.43)	8.50(.000)	4.16(0.55)	1.89(0.154)
	Moderate	5.60(0.84)		3.47(0.41)		4.01(0.53)	
	Bad	6.00		3.13		3.85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5.98(0.78)	0.00(0.984)	3.69(0.41)	0.92(0.340)	4.14(0.55)	0.78(0.379)
	Moderate	5.77(0.77)		3.44(0.46)		4.03(0.54)	
Selection motivation to study nursing	Interest ^a	6.02(0.76)	1.05(0.384)	3.76(0.44)	4.65(.001)	4.32(0.50)	5.05(0.001) a>b, c
	Academic score ^b	5.91(0.59)		3.51(0.38)		3.93(0.59)	
	Job opportunity ^c	5.83(0.77)		3.50(0.41)		3.97(0.50)	
	Advice of parents	5.88(0.90)		3.59(0.43)		4.06(0.54)	
	Etc	5.13(1.24)		3.60(0.44)		3.65(0.92)	
Level of academic score	High ^a	5.96(0.80)	2.42(0.091)	3.75(0.43)	4.11(0.018) a>c	4.21(0.62)	6.36(0.002) a, b>c
	Medium ^b	5.96(0.75)		3.60(0.42)		4.14(0.50)	
	Low ^c	5.64(0.84)		3.46(0.50)		3.80(0.53)	
Hope that the first course after graduation	Clinical nurse Admission of	5.92(0.80)	0.67(0.647)	3.62(0.43)	1.91(0.095)	4.13(0.53)	1.35(0.246)
	graduate school A nurse-teacher	5.50(0.63)		3.64(0.35)		3.93(0.75)	
		6.14(0.13)		3.02(0.40)		3.59(0.69)	
	Industrial nurse Health service	6.36(0.57)		3.73(0.24)		4.31(0.28)	
	official	5.82(0.71)		3.39(0.31)		3.84(0.69)	
	Etc	5.92(0.24)		3.91(0.31)		4.04(0.38)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	6.06(0.76)	7.19(0.001) a>c	3.75(0.39)	16.71(0.000) a>b,c	4.34(0.43)	35.99(0.000) a>b>c
	Moderate ^b	5.80(0.77)		3.48(0.42)		3.86(0.51)	
	Unsatisfaction ^c	5.33(0.57)		3.22(0.54)		3.51(0.57)	
Satisfaction of school life	Satisfaction ^a	6.08(0.74)	10.72(0.000) a>b>c	3.75(0.41)	23.44(0.000) a>b>c	4.31(0.45)	37.86(0.000) a>b>c
	Moderate ^b	5.77(0.72)		3.48(0.36)		3.94(0.49)	
	Unsatisfaction ^c	5.20(0.91)		3.09(0.50)		3.26(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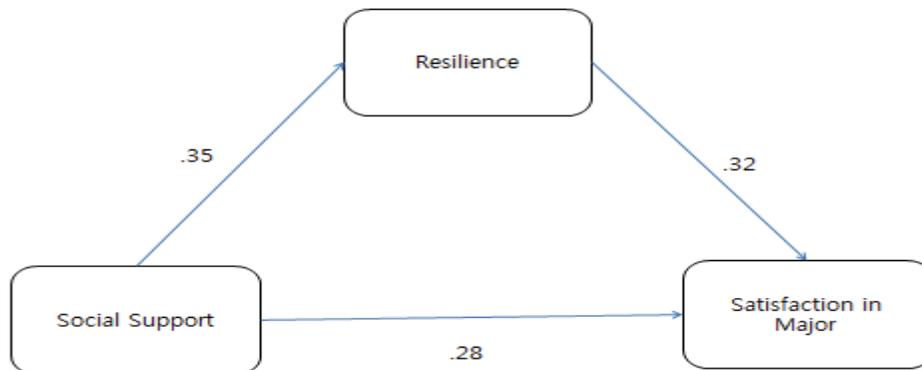


Figure 2. AMOS Analysis for research model

Table 5. Effects of predictor variables

Path	β	Direct effect(p)	Indirect effect(p)	Total effect(p)	SMC
Social support → Resilience	5.253	.345(.010)	-	.345(.010)	.119
Resilience → Satisfaction in Major	4.391	.322(.010)	-	.322(.010)	.248
Social support → Satisfaction in Major	4.976	.284(.010)	.111(.010)	.395(.010)	

로 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β=.111, p=.010), 총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β=.395, p=.010) 설명력은 24.8%였다.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와 전공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 정도는 평균 5.91 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를 연구한 Jung & Chung(2012)의 5.32 점보다 높았고, 도구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et. al.*(2013)의 5.25 점(7 점 환산)보다 높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정도가 다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에 관한 만족도가 높으면 상승하고, 한 개인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사회적 지지에 중요한 영향력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하여(Kweon, *et. al.*, 2012), 본 연구 대상자들이 대

인관계가 좋다고 인식한 군이 59.0%로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지지는 결국 대인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훈련 등을 중재를 함으로써 대인관계만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회적 지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 정도는 평균 3.61 점으로 중간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연구한 Yun & Min(2014)의 3.60 점과 유사하였고,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im & Kim(2014)의 3.70 과 유사하였다. 반면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인문대학생과 비교하였을 때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Park, 2009). 자아탄력성은 역동적이고 변화가 가능하므로(Lee & Park, 2014), 간호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 중재가 요구된다. 또한 일반대학생과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비교연구 축적을 통해 일반대학생과 비교한 간호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 수준에 대한 구체적 가늠과 관련변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전공만족도 정도는 4.10 점으로 Kim & Lee(2014)의 3.64 점, Lim(2014)의 3.50 점보다

도 높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적성과 취업 때문에 학과를 선택한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았는데(Kim & Lee, 2014), 본 연구대상자 역시 흥미와 높은 취업을 때문에 간호학과에 진학한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Cho(2014)와 Lee, *et. al.*(2013)의 연구결과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 적응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일종의 대학생활 적응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대학생활만족도에 만족한다는 군이 55.6%로 높았던 것도 전공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결과 성격이나 타인의 권유로 간호학과에 입학한 대상자도 34%로 간과할 수 없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타의적으로 간호학과를 입학한 학생에 대한 적극적 중재와 중고교시절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에 대한 적절한 탐색이 아울러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학과 선택동기, 학과성적이 높고, 임상실습만족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것은 선행연구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었다(Kim & Lee, 2014; Lim, 2014). 선행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학과선택이 전공만족도 향상의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지와 전공만족도는 양의 상관관계($r=.395$)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행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Kweon, *et. al.*(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전공만족도와의 양의 상관관계가 드러났으므로,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적극적 중재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세 가지 하부요인과 전공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와 전공만족도와의 관계가 $r=.370$ 으로 가장 높았는데, 의미 있는 타인의 일원으로서 교수도 포 함되므로 교수가 학생을 지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교과과정 중에 삽입하는 일도 사회적 지지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은 양의 상

관관계($r=.345$)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은 간호대학생, 알츠하이머 돌봄제공자, 유아교사와 같이 다양한 대상 집단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wag, 2013; Chung & Lee, 2011; Wilks & Croom, 2008). 따라서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해 일종의 처방이론인 사회적 지지를 활용한 구체적 중재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한 사회적 지지 제공을 위해 간호대학생의 구체적 지지를 확인하고 사회적 지원에 따라 지지내용을 다르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대상자의 자아탄력성과 전공만족도는 $r=.420$ 으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Kim & Lee(2014)의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과 전공만족도는 $r=.253$ 으로 상관성이 있었고, Lim(2014)의 연구에서도 $r=.433$ 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향후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전공만족도 향상을 꾀하는 전략적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된 경로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전공만족도 간에 자아탄력성은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으면 자아탄력성이 증가하여 전공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Lee & Park(2014)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다는 결과와, Lim(2014)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학습동기와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면에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전공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보다는 자아탄력성을 통해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경로에서 설명력은 11.9%,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과 전공만족도의 경로에서 설명력은 24.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관련 변인의 탐색이 보다 더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효율적인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간호대학생은 과중한 학업과 실습을 병행하는 가중된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개인 내적 요인인 자아탄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그 결과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때 개인의 자아탄력성 향상에 보다 초점을 맞춘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및 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전공만족도의 관계에 있어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과 전공만족도에 직접효과가 있었고, 자아탄력성은 전공만족도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은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전공만족도 간에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지지 제공이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자아탄력성 향상에 초점을 둔 사회적 지지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간호실무는 재난이나 질병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재난이나 질병을 당한 개인들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변인들에 관한 탐색과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

References

- Bae, Byung Ryul. 201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19: Principle and Practice*. Seoul: Cheongram.
- Chang, Moon Young. 2005. The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on Their Majors, Attributional Style and Career Decision Lev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 Cho, In Young. 2014.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5): 2937-2945.
- Chung, Hoe Wook and Ock Hyung Lee. 2011. The Influence of Job Stress, Ego-Resiliency and Social Support on Job Satisfaction among Beginning and Experienced Preschool Teac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1(3): 31-53.
- Earvolino-Ramirez, M. 2007. Resilience: A Concept Analysis. *Nursing Forum*. 42(2): 73-82.
- Gillespie, B. M., W. Chaboyer, and M. Wallis. 2007. Development of a Theoretically Derived Model of Resilience through Concept Analysis. *Contemporary Nurse*. 25: 124-135.
- Jung, Hyo Ju and Hyang In Chung. 2012. Effects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1(3):188-196.
- Jung, Eun Ok. 2006. Validation of Psychological Resilience Sca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Jung, Mi Hyeon and Mi A Shin.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170-177
- Kim, Duck Jin and Jeong Seop Lee. 2014. Influence on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20(2): 244-254.
- Kim, Jung Hee. 2008. The College Adjustment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 University.
- Kim, Jeong Yun and Hyun Sook Park. 2015. The Factors Related to Happines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1): 545-559.
- Kim, Mi Jin and Byung Man Kim. 2014. The Medit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 Resilience and Happiness in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3(4): 143-162.

- Kwag, Youn Kyoung. 2013.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rporation*. 14(5): 2178-2186.
- Kweon, Hyun Joo, Young Hee Nam, and Eui Young Cheon. 2012.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Social Support Types of Students in the Dept.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13(2): 17-27.
- Lee, Gyoung Wan, Inn Oh Moon, and Sook Kyoung Park.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College Adjustment and Academic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14(2): 15-27.
- Lee, Mi Ra and Bun Hee Park. 2014.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Job-prepar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1(4): 77-93.
- Lee, Ock Hyung. 2013. The Influence of Life Stress,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1): 29-57.
- Lim, Jung Hye 2014. Construction of a Structural Model about Nursing Students' Academic Motivation, Ego-resilience and Satisfaction in Major.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4): 2273-2284.
- Moon, Inn Oh and Gyoung Wan Lee. 2010.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1): 83-91.
- Oh, Ka Sil. 2006. Social Support as a Prescription Theory. *Journal of Nursing Query*. 15(1): 134-154.
- Park, Hyun Iung and Jae Woo Oh. 2014.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2): 417-426.
- Park, Wan Ju. 2009.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Learning Styles, and Academic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3): 240-250.
- Yun, Sun Young and Shin Hong Min. 2014.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piritual Well-being on College Adjustment in Major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2): 395-403.
- Wilks, S. E. and B. Croom. 2008. Perceived Stress and Resilience in Alzheimer's Disease Caregivers: Testing Moderation and Mediation Models of Social Support. *Aging & Mental Health*. 12(3): 357-365.
- Zimet, G. D., N. W. Dahlem., S. G. Zimet. and G. K. Farley.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30-42.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곽윤경. 2013. 간호대학생의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가 대학생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5): 2178-2186.
- 권현주, 남영희, 천의영. 2012. 보건행정학과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13(2): 17-27.
- 김정운, 박현숙. 2015.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관련요인. 한국자료분석학회. 17(1): 545-559.
- 김정희. 2008. 알코올 중독자 대학생 자녀의 대학생생활 적응.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덕진, 이정섭. 2014.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2): 244-254.
- 김미진, 김병만. 2014.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행복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3(4): 143-162.
- 문인오, 이경완. 2010.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효과. 2010.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1): 83-91.
- 박완주. 2009.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비판적 사고성향, 학습양식 및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18(3): 240-250.
- 박현정, 오재우. 2014.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간호 전문직관의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12(2): 417-426.
- 배병렬. Amos 19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오가실. 2006. 처방이론으로서의 사회적 지지. 간호학탐구.

- 15(1): 134-154.
- 윤순영, 민신희. 2014.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영적안녕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2(2): 395-403.
- 이경완, 문인오, 박숙경. 2013.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가 대학생생활 적응과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 14(2): 15-27.
- 이미라, 박분희. 2014.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준비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1(4): 77-93.
- 이옥형. 2013.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1): 29-57.
- 임정혜. 2014.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 자아탄력성과 전공만족도에 관한 경로모형. 한국자료분석학회. 16(4): 2273-2284.
- 장문영. 2005. 대학생의 학과만족도, 귀인성향 및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현, 신미아. 2006.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2): 170-177.
- 정은옥. 2006. 심리적 탄력성 척도의 타당화.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옥, 이옥형. 2011. 초임 유아교사와 경력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1(3): 31-53.
- 정효주, 정향인. 2012. 3년제 간호대학 신입생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21(3): 188-196.
- 조인영. 2014.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상관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지. 15(5): 2937-2945.

Received: Mar. 1, 2016 / Revised: Jun. 24, 2016 / Accepted: Jun. 28, 2016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국문초록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전공만족도의 관계에 있어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는 P 시와 Y 시에 소재한 3 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과 학생이며, 자료수집은 2015 년 3 월 16 일부터 2015 년 4 월 10 일까지 205 부가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과 AMOS20.0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평균, 표준편차,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경로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에 직접효과가 있었고, 자아 탄력성은 전공만족도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전공만족도 간에 자아탄력성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간호대학생의 효율적인 사회적 지지 제공 이 그들의 자아탄력성과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지지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과 내 - 외 과정에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주제어 :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간호대학생

Profiles **Mi Young Han** : She received her Ph. D. from Kosin University. She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Department of Nursing at Silla University, in which she has taught since 2015.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disaster management, global nursing, nursing theory(hmynr@silla.ac.kr).

Young Suk Kim : She received her Ph. D. from Kosin University. She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College of Nursing at Kosin University, in which she has taught since 2014. Her interesting subject of research is global nursing, nursing education (joy1763@hanmail.net).

Min Kyung Jeon : She received her M.A., Ph.D. from Kosin University, Korea. She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Kaya University, in which she has taught since 2015. Her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Oncology nursing and Nursing management. She has published 4 articles in journals and written 3 books, including 2 co-author books(angi99@kaya.ac.kr).

Ick Jee Kim : She received a bachelor's degree, a Master's degree and Ph.D. from Kosin University, Korea. She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Youngsan University, in which she has taught since 2014. Her interesting subject of research is nursing, nursing education, male nurses, and nursing students(ijkim@ysu.ac.kr).